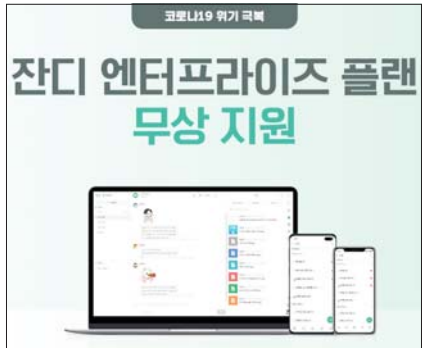


화상회의 최대 100명 ‘거뜰’ ‘잔디’ 무상지원에 기업 몰려

토스랩 업무용 협업툴 ‘잔디’ 재택근무 활성화에 문의 잇따라 CJENM, 동성그룹, 부산대 남성해운 등 150개 기업 신청



토스랩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한 협업툴 ‘잔디’ 무상 지원에 150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토스랩은 코로나19사태로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한 협업툴 ‘잔디’ 무상 지원에 150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달 25일부터 약 2주간 재택근무를 위해 화상회의를 포함한 잔디의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를 신청한 기업이 150개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CJENM, 동성그룹, 남성해운, 윈스토어, 와디즈, 교보문고, 부산대학교 등 다양한 산업군이 신청했다.

‘잔디’는 업무용 협업툴로 주제별 대화방, 할 일 관리, 스마트 검색, 드라이브 등 업무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해 재택근무 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는다. 또 최대 100명까지 동시 접속 가능한 화상회의 기능을 통해 원격 회의를 열거나 화면을 공유해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 토스랩 김대현 대표는 “재택근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도입 문의가 지난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재택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성공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랩은 4월 30일까지 ‘잔디’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홈페이지 문의 후 링크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노란우산공제 대출 2兆 푼다 소상공인·소공인 당일 대출

중기벤처부-중기중앙회 공제해약 환급금의 90%내서 금리 2.9%로 1년간 대출 가능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 대출 규모가 2조원까지 늘어났다.

노란우산 공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시와 손잡고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올해 64억원까지 확대·지원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조4000억원 규모였던 노란우산 대출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경영이 악화돼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앞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기존 3.4%에서 2.9%로 0.5%p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일평균 610건, 59억원 정도였던 노란우산 대출 규모는 금리를 내린 지난 2월13일부터

현재까지 일평균 건수(949건)와 대출액(99억원)이 크게 늘었다.

중기부 코로나19 대응반 관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노란우산 대출 확대와 이차율 인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내에서 1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면 자격·한도 확인 등을 거쳐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코웨이 화력 강화한 ‘인덕션 전기레인지’

코웨이는 ‘코웨이 인덕션 전기레인지(CIR-302·사진)’를 출시하고 프리미엄 전기레인지 시장 선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강력한 화력과 사용 편의성 제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두루 갖춘 코웨이 인덕션 전기레인지는 세계의 인덕션 화구가 모두 ‘고화력 파워 부스터’ 모드로 최대 3.0kW의 강력한 화력을 구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장시간 가열해야 하는 조리 시간을 줄이고, 강한 화력이 요구되는 볶음 요리와 튀김 요리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조작부에는 고급스러운 LED 라이트를 적용했으며, 사용시에만 조작부가 보이도록 디자인해 깔끔하다.

또, 생활 충격과 스크래치에 강한 ‘소프트’사의 세라 글라스를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으며, 청소도 쉽다.

이 제품은 번거로운 전기 설치공사 필요 없이 가정용 파워 코드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가격은 렌탈 구매시(등록비 10만원 기준) 월 2만9900원이며, 일시불은 169만원이다. 렌탈 고객에게는 30개월 차에 무상으로 상환 교체 서비스를 제공해 언제나 새 제품처럼 사용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인덕션 전기레인지 CIR-302는 3구의 화구 중 좌측 상·하 2구는 ‘플러스 화구’로, 일반모드일 때는 각각 화구를 분리해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다. 또 2구를 연결하는 ‘플러스 모드’로 확장하면 더욱 넓은 용기를 사용해 구이, 부침 등을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다.

아이마켓코리아 러버메이드 카트 단독 수입

아이마켓코리아는 청소용품, 카트, 대차를 제조 판매하는 세계적인 브랜드 러버메이드와 손잡고 일부 제품을 단독 수입·유통한다고 10일 밝혔다.



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러버메이드의 고하중 대차는 최대 1100kg 용량까지 적재가 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나다.

고하중카트, 대형 쓰레기, 대차 등 러버메이드의 산업용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면서다.

러버메이드는 1968년 설립, 올해로 52년된 미국 기업으로 전 세계 각지에 다양한 생활용품, 청소용품, 카트, 대차 등을 수출하고 있다.

러버메이드 제품의 주된 소재는 고강도 특수 HDPE 플라스틱 재질로 녹슬거나 깨지지 않아 오랜 기간 사용 가

아이마켓코리아는 러버메이드 유통 기념으로 자체 온라인 쇼룸을 열어 아이마켓몰에서 러버메이드 제품을 최대 45%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 특가 기획전도 3월 말일까지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20억 기부’ 교원그룹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7개 빌딩 입점 소상공인 두 달간 임대료 감면키로 대구 지역은 50% 면제

교원그룹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교원그룹은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는 50% 면제하며 그 외 지역은 30% 내리기로 했다. 교원그룹이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7개 빌딩



서울 을지로에 있는 교원그룹 본사 전경.

입점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앞서 교원그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취약 이동을 위해 20억 규모를 지원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휴관으로 가정에 홀로 고립된 아이들의 학업 공백과 결식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물품과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교원 구문 안심 키트’를 지원했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전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 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이번 일로 고통받거나 위기 극복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한샘, 대구·경북에 구호물품 수송 지원

한샘은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해 시공협력 기사들로 구성된 ‘한샘 긴급물류지원단’을 편성하고 한달 간 구호물품 수송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의료진 및 자원 봉사자가 모여들고 기업 및 단체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샘도 지역사회에 구축된 자사의 물

류 인프라를 활용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샘은 전국 각지에서 ‘대구스타디움’에 모인 마스크, 방역복, 손소독제, 헤어캡 등 의료용품과 도시락, 생수 등 구호물품을 지역 내 병원, 보건소,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긴급 수송한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포항, 문경 등 경북지역 전체에서도 구호물품 긴급 수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직접생산확인’ 현장 방문 실태조사 22일까지 유예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3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직접생산확인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실태조사원이 신청업체를 방문, 실태조사 후 적격여부를 판단해 발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전염우려 등 실태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미발급으로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김승호 기자

AI 수학 스타트업 제제듀, 시드 투자 유치

인공지능(AI) 수학교육 서비스를 개발하는 제제듀가 퓨처플레이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투자 규모는 비공개다.

제제듀는 연세대수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이주진 대표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기술을 통한 개인화 수학 교육 보편화의 필요성을 체감해 지난해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AI 기술을 활용해 수학 학습의 전 과정을 개인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집행한 퓨처플레이 권오형 파트너는 “제제듀가 수학 교육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저비용, 고효율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